

어릴 적부터 제 꿈은 하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정서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바둑이 좋으며 7세부터 바둑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봉배 바둑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저는 프로기사의 꿈을 갖게 됐지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신 후, 매달 60만 원이라는 수강료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바둑도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 후 집 근처 바둑학원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됐지요. 중고등학교 때에는 학교 측의 배려로 꾸준히 바둑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독학하다보니 18세가 돼야 비로소 프로기사가 될 실력을 갖췄습니다.

그 후 저는 다른 대회에서는 상위권에 머물렀음에도 프로 입단대회에만 출전하면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극도의 긴장감으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결승 판에서 연장자가 패한다는 선례를 알고 있었기에 해가 지날수록 압박감이 가중됐습니다.

결국 저는 2010년 9월, 프로 입단 낙방이라는 쓴맛을 본 후 '프로기사의 꿈을 접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해 4월 17일, 제 신앙뿐 아니라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당회장님께서 "꼭 프로기사가 안 돼도 좋으니 바둑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성이나 세상 바라보지 말고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하시며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좋은 바둑도장에서 프로기사들과 대국을 하면서 실력을 키웠습니다. 마침내 2010년 10월, 아마추어 랭킹

하나님 사랑으로 열매 맺은 바둑 프로기사 입단의 축복



기도와 사랑으로 힘이 되어 주는 어머니 윤상의 권사(좌)와 함께

이호승 형제 (3청년선교회)

1위에 올랐습니다. 2011년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바둑도장에서 공부를 하고, 오전 11시-12시에는 6km를 달리면서 체력 증진과 함께 정신력을 무장해 나갔지요. 이에 그해 8월에 열린 입단대회에서 저는 꼭 프로기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깝게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 당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피곤하다며 기도를 쉬었던 일, 아마추어 바둑 랭킹 1위라는 타이틀로 교만했던 마음, 입단대회를 앞두고 당회장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고, 바둑공부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너무 죄송해 민망한 마음으로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영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하니 깨달은 저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 예배드리는 자세와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졌고, 최선을 다해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썼지요.

2012년 1월 어느 날, 당회장님께서 제게 "서운한 마음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던 중 통회자복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신 후 가정 형편 때문에 바둑공부를 제대로 못해 프로기사가 빨리 되지 못한 것에 아빠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프로 입단을 하지 못한 이유는 굳건

한 믿음을 소유해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지요.

하나님께서서는 프로 입단이라는 축복보다 영혼이 잘돼 버스가 잘되는 진정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바둑공부를 하며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에 집중하니 제 마음은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2012년 4월에는 제9회 동아증권배 온라인 바둑 최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지요.

드디어 2013년 1월, 한국기원에서 제132회 일반 입단대회가 열렸습니다. 10판 중 8승 이상을 해야 프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대회 초반에 2승 2패로 부진했습니다. 이후 연속 6승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지금까지 프로 입단대회에 출전하면 극도로 긴장해 결과가 좋지 않아 예전 같았으면 벌써 낙담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회장님께서 프로가 될 수 있다며 기도해 주셨으니 이번엔 프로가 돼 기쁨을 안겨 드리기 원합니다. 실령 이번엔 프로가 안 되더라도 곧 될 것이니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후 과연 다섯 번째 대국부터는 전혀 긴장이 안 됐고, 오히려 상대가 긴장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부담감이 임했습니다. 이후 6연승을 해 종합전적 8승 2패로 프로기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이뤄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육 간에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무실 수가 없었지요. 저는 2009년,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예루살렘 ICC에서 열린 '이스라엘 연합대성회'에서 나타난 권능의 역사들과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한국에서 가져온 무안단물(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변화한 하나님 권능이 담긴 물)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어머니 방광 부위에 무안단물을 뿌린 다음 권능의 손수건을 얹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각했던 방광 경련 증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갖나για처럼 편안히 주무십니다. 할렐루야!



“권능의 손수건과 무안단물의 위력 대단합니다”

미리암 아브라모브 (이스라엘 리슨 레치온 면류관 보석교회)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스 및 연락처

- 주일 예배: 주일 저녁 8시 금요일예배: 새만민중앙교회 및 NSS-6층 동서 화상실에서 드립니다.
- 부산선민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원 1동 275-77 ☎010-8223-4994, 010-5202-5547
- 서울선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2동 109번길 백영B/D 7층 ☎010-8269-1537, 010-5521-2073
- 해운대선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화곡 1433-3 5층 ☎010-8202-7333
- 대구선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신동 1가 104-9 ☎0533356-4771, 010-4575-1934
- 새대구선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반월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선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289-2035, 010-8282, 010-5434-3827
- 광주선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월동 177 생강길 2번 ☎062933-2455, 010-8888-0727
- 새광주선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채동 188 은촌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22, 010-2290-7779
- 동중주선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괴뢰동 167-4 ☎062286-7001, 010-3837-6443
- 울산선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67-5911, 010-2485-1537

- 부산선민교회: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496-46 ☎0512291-2259, 010-2926-4537
- 안양선민교회: 경기도 안산시 광도읍 대림리 102-1 ☎031952-9981, 010-3278-7712
- 경기도 연합교: 경기도 안산시 배후동 1석정리 391 ☎0319835-1717, 010-2634-5478
- 천안선민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722-3 ☎041677-7077, 010-3447-7077
- 충남 공주시 선관동 600-22 ☎041987-7000, 010-3303-7025
- 충남 서산시 잠룡동 564-15
- 041667-4721, 010-2781-2073
-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784-0091, 010-7195-1099
- 043289-7077, 010-9271-701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89-9367, 010-8433-2073
- 054291-2468, 010-7940-3367
- 043211-1955, 010-8291-7173
-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투진상가 201호 ☎043845-0917, 010-2278-0641

- 마산선민교회: 경상남도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9~2, 010-5527-2073
-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 0551953-9192, 010-9382-2073
- 경남 사천시 사천동 산리리 301-5
- 055289-9522, 010-9331-4405
- 경남 통영시 용남동 화상리 965-1 ☎053948-9167, 010-7224-8991
-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220-2 (3층) ☎055387-6882, 010-3800-2048
-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619-9367, 010-8433-2073
- 경북 영주시 남궁읍 대정동 909-10 (3층) ☎054291-2468, 010-7940-3367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안일리 1068-1 ☎054820-4572, 010-3343-1537
- 전남 여수시 도덕동 500-5 ☎061852-8311, 010-7317-2073

- 목포선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95-2번지 ☎061284-3133, 010-2829-8275
- 무안선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미면 청정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선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 070-4028-2915, 010-2536-2515
- 전북 전주시 호신구 호재 271 929-1 ☎063222-4991, 010-4202-1537
-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전북 군산시 나문동 798-7 ☎063469-7027, 010-7777-7027
- 전북 완주군 동면 학리 245번지(3층) ☎033261-4217, 010-2759-7017
-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176-1535, 010-9108-2073
- 강원도 속초시 평향동 163-64 ☎033363-0271, 010-7777-7027
- 강원도 강릉시 보남2동 1312-4 3층 ☎033641-3190, 010-6334-7750
-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9-2251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8-3 ☎023965-9951, 010-7487-1712

- 안산지성전
- 관지성전
- 분당지성전
- 일산지성전
- 구리지성전
- 강동지성전
- 부평지성전
- 수원지성전
- 인천지성전
- 안양지성전
- 부곡지성전

- 경기도 안산시 율리동 59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시 서구 주안 5동 23-41 ☎02963-9857, 010-287-7369
-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1269-3835, 010-7720-7700
- 상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6355-1928
- 강도 경산시 앞산동구 북동동 152-3 ☎031905-2419, 019-276-1014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952-7391, 010-2290-1896
-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8, 010-3330-3172
-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2628-3630, 010-7720-770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6-4 ☎031935-9103, 010-2718-7458
- 경기도 의정부시 영남동 1동 196-1 ☎031940-2906, 010-2251-3149

01 교회소식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닛시오키스트라는 74명의 단원들이 15종류의 현악, 관악, 타악 기 연주로 주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_선 시리즈 3

뜻의 선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리를 좇는 선을 행한 뜻은 이방 여인임에도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다.

03 기획특집

진정한 신뢰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를 알아보고 믿음의 선진들과 비교해 살펴봄으로 자신의 신뢰도를 점검해 본다.

04 간증

“주님이 계셔서 제 삶은 행복해요”

바둑 프로 기사 입단의 꿈을 이룬 이호승 형제와 하나님 권능으로 노모의 질병이 치유된 이스라엘 미리암의 간증.



최고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세계 최초의 찬양전문 닥시오키스트라 창단 21주년 맞아



닛시오키스트라 단원들은 주님 사랑과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전하는 값진 연주를 할 수 있기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한다(사진은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광복 50주년 기념 평화통일 회년대회'①, '2003 이재록 목사 초청 러시아 연합대성회'②, '만민중앙교회 창립 축하행사'③~⑤, '문화나눔 행사 '닛시 해피콘서트'⑥).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단된 닥시오키스트라가 21주년을 맞는다. 지휘자를 포함해 74명으로 구성된 닥시오키스트라는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수년간의 기도 끝에 1992년 3월 1일 창단했다.

승리를 의미하는 '닛시'(출 17:15)라는 이름처럼 각종 예배 시 설기대의 찬양과 함께 영감어린 연주로 예배를 더욱 찬미하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특히 이재록 목사가 인도한 2000년 일본 나고야, 2001년 필리핀, 2003년 러시아 연합대성회 등 해외 선교 사역에 함께했다.

닛시오키스트라는 국가연례조

찬기도회, 외국 대사관 친선음악회, 2002 월드컵 공동유치 한일축구 친선대회 개막연주 등 국가적 차원의 연주와 1992년 세계성령화대성회 등 각종 교계 연합행사, 사회문화단체의 자선음악회 등 100여 회가 넘는 연주를 통해 복음 전파와 기독교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다수의 국내 및 해외 발매 찬양 앨범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들의 연주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

는 주님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지휘자 조관형 장로는 "처음부터 단원들이 신실한 믿음을 소유

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함을 깨우치며 신앙의 기초를 다져 나가니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자주 중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로 변화했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경우도 많다.

단원들이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의 향이 됐다. 그동안 단원으로 헌신한 성도 중에는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헌신하는가 하면, 하나님 권능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경우도 많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안미영 집사는 석회성 견염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깨끗이 치료받았고, 마립바와 각종 타악기를 담당하는 이민정 자매는 난소 혹을, 후론에 깊은정 집사는 발가락 골절을 깨끗이 치료받았다.

콘트라베이스 담당 박지은 집사는 요로결석을, 비올라 이정아 집사는 요로결핵이나 아동은 화기영인 고관

절 농양을 치료받았고, 후론과 콘트라베이스 이재만-김은성 집사 부부는 양태의 축복을 받았다.

최고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소망하는 닥시오키스트라는 정기예배와 매일 기도회로 영적인 축전을 한다. 이들은 정기연습 외에도 개인 실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한 꾸준한 단원 증원을 통해 세계적인 대형 오케스트라로 발돋움하고 있다.

무엇보다 권능의 목회자 이재록 목사를 도와 승리의 깃발을 앞세우며 세계의 수많은 영혼에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오케스트라가 될 것이다. 그동안 사랑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롯이 가로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영혼에게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롯기 11:6~17)

구약 성경 롯기를 보면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했으며에도 선한 마음을 소유함으로 누구보다도 축복된 삶을 살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롯은 늙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며 희망 없는 삶 속에서도 자신의 도리를 좇는 선(善)을 이뤘습니다.

그 결과 롯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증조모로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과연 롯은 어떠한 선의 마음을 소유했기에 이처럼 축복받은 여인이 됐을까요?

1. 끝까지 자신의 도리를 좇은 롯

롯은 모압에 살던 이방 여인으로서, 심한 흉년을 피해 이주해 온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아들들은 후손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음을 맞는 비극을 겪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동서 오르바, 그리고 롯만 남았습니다. 이때 시어머니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남편도 없는 두 며느리를 붙잡혀 여겨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 평안히 살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동서 오르바는 울며 떠났지만, 롯은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시라니!”(롯 1:16)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좃았습니다. 만약 롯에게 자기 유익을 좇는 마음이 있었다면 인정상 한두 번은 거절하다가 오르바처럼 못이기는 척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마음을 지닌 롯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도리를 좇아 행하고자 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롯의 선

1) 자신을 희생하며 도리를 좇는 마음
롯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가면 일가친척이 있고, 재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좇아간다면 시어머니의 고향이지만 롯에게는 낯선 땅이라 당장 먹고 살 뚜렷한 방안도 없었지요. 더욱이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롯이 모든 생활의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롯은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고 단호히 자신의 도리를 좇아 홀로 된 시어머니를 섬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도리를 좇는 선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현재 근무하는 직장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길 것을 제안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라는 상담을 받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분명히 유익이 되는 편을 택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어려울 때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좋은 기술을 배워 능력 있는 전문인이 됐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도리이며 선입니다. 꼭 이직(移職)을 해야만 하는 형편이라면 자신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던 직장에 결코 헤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현실의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도리를 좇는 선을 택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신앙 안에서 도리를 좇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빠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과 주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고 심일조를 드러며 계명들을 지키게 되지요. 도리를 좇는 편을 택하는 선한 마음이라면 하나님께 심일조를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은혜의 체험을 하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심분의 일만을 드러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결코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초신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 주일 성수와 심일조 생활을 잘합니다.

우리가 것처럼 자신의 도리를 좇는 선이 있으면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물론,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체험을 주시며 영적 믿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2) 성실과 진실로 변함없이 도리를 행하는 마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 가운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변함없이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축복해 주십니다. 롯은 시어머니를 좇아 유대 땅으로 온 후로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처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당장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처지였기에 하루 종일 주운 이삭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도 기쁘게 여겼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조근조근 상세히 아뢰었지요. 친딸보다 더한 성심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사랑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롯을 친딸처럼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롯의 행실은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에게 알려져 칭송

을 받았습니다. 성읍의 유력자인 보아스가 시어머니의 근족으로서 롯의 기업 무를 자가 되 롯을 아내로 삼게 됐고, 그녀는 영육 간에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롯 2:20, 롬 25:25). 롯이 보아스에게서 낳은 아들 오벧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로써 롯은 이방 여인이면서도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 중심이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할 때 몇 번 하다가 그치지 않습니다. 상대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사람으로서 바른 도리를 좇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것처럼 변함없이 선을 행하지요.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진리 말씀을 아는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에서 주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지요. 더군다나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이므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좇아 행함으로 하나님 자녀 된 도리를 다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주님 은혜에 감사해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분들은 그 마음에 변함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며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분이시기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해도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합 3:17~19).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혹은 교회에서 영적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자신의 도리를 다하고 계신지요? 만일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됐다면 영육 간에 자신의 도리를 좇아 변함없이 행할 것입니다. 롯과 같이 자신의 도리를 좇는 선을 온전히 이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진정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를 통해 과연 진정한 신뢰란 무엇인지 살펴본다.

1 단계 _ “그럴 리가 없어.”

자신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누군가 함담할 때 “그럴 리 없어. 그릴 사람이 아니야. 네가 잘못 안 거야.”라고 확고하게 말했다면 온전히 신뢰한 것일까? 사람이 보기에는 신뢰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신뢰라고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럴 리가 없어”라는 강한 부정어 안에는 ‘혹여 그렇다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안 좋은 말을 전하며 이간질할 때 귀가 솔깃해지고 들으려고 한다. 하지만 진정 상태를 신뢰한다면 좋지 않은 말을 듣지 않을뿐더러 ‘그럴 리가 없어’라는 생각 자체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단계 _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 신상에 절하지 않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풀무 불에 던져 넣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건재하실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담대히 말한다. 이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을 앞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마음이 변치 않았다. “그럴 리가 없어”가 조건적인 신뢰라고 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무조건적인 신뢰라 할 수 있다. 진정 신뢰 관계를 이룬다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마음이 된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주인이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더 일하고 수고를 들라 해도 다 행한 후에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초처럼 겸비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3 단계 _ “선하신 뜻이 있으실 거야.”

자신의 한계를 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드릴 수 있는가? 바로 내 생각과 정반대일 때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드릴 수 있어야 진정 신뢰하는 것이다(사 55:9).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축복하신 독자 이삭을 반제로 드러라 하실 때 아무 생각없이 그 즉시 순종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를 믿어주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선으로 보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다.

4 단계 _ “아, 이런 마음이시구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창 45:5)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한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에 의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 종살이하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야곱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았기에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섭리를 온전히 이룰 수 있었다(창 50:20~21). 진정한 신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 순종하는 차원이다.

믿음의 선진들과 비교해 나의 하나님 신뢰도를 점검해 보자

- ◆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믿는가?

다윗 왕이 연단받을 때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더 이상 다윗 왕의 시대는 없는 듯했다. 만약 다윗의 용사들이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다윗 왕을 배신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 왕이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를 신뢰하고 죽음의 위협에도 끝까지 따랐다. 반면에 현실을 보고 자신의 유익을 좇는 사람들은 결국 배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떠한가? 자신을 통해 희한한 능을 행하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한 것이 아니다. 죽도록 매 맞고 감옥에 갇히도록 놔두신 하나님도 찬미했고, 행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놔두신 하나님도 끝까지 믿고 신뢰했다. 진정한 신뢰는 자신의 상황과 위치, 환경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 ◆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가?

만약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반제로 드러라는 하나님 말씀에 “내 생명과 전 재산은 드릴 수 있지만 이삭만은 안 됩니다.” 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도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벗이라고도 불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 약속의 씨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반제로 드릴 수 있었다.

예수님 사역 당시 많은 사람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사건을 만났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한 예이다. 이때 많은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우치지 못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하지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제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아멘.” 하며 예수님을 좇았다.
- ◆ 평소 순종의 행함이 따르는가?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다윗이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물뿔들을 던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즉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자신의 능력을 키워 보장해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아무런 믿음의 행함도 없이 ‘기도받았으니가 되겠지.’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도 평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일이었지만 예수님을 신뢰했기에 그 말씀에 의지해 아무 생각없이 물 위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평소 순종하는 행함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말해도 가까이 순종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신뢰라 할 수 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모이는 길

주요 연락처
● 전화: 02) 818-7399~51
● 주일: 02) 818-7399~51
● 주일: 02) 818-7399~51
● 주일: 02) 818-7399~51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 /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 2번 출구 / 도보 10분

시내버스
다들단지 오가위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영등포구청역 정류장/남부순환도/651,5528, 504,643,5529
구로디지털단지 정류장/시내버스/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9/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9번도, 5619번(대행 버스)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의 예배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성경교의 예배
주일 자매예배
금요찬양예배
수요예배
화요찬양예배 [청년·가인]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다.월요일 기도회 9:00 PM (예배/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예배/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한 광무동 시 우송로만은 광무동까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로 : 1천부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100072-52-067722
농협 01249-02-047269

2 February

2013 GCN방송 시청자 설문조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2012년 한 해 동안 GCN방송서비스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2013 GCN방송 시청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3년 2월 24일 ~ 3월 3일
● 방법 : 홈페이지 www.gcnv.org, www.manmin.org
모바일 홈페이지 m.gcnv.org 접속 후 설문참여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서비스 문의 1577-2073